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국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3. 8. 27 ~ 2023. 9. 16 제287호

재중 탈북민 2600명 강제 송환 반대 촉구 이어져

코로나 완화로 인한 북한의 국경 개방 조짐에 이어, 중국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앞두고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중국에 체포·억류 중인 2600명의 탈북민이 강제 복송 위협에 놓이자 이들의 강제 송환 반대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통일준비국민포럼 등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중 탈북민 강제 복송 저지를 위한 긴급세미나'를 열고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복송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며 중국 정부의 재중 탈북민 강제 송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강승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은 "중국 당국은 이들을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이 아니라 단순한 월경으로 간주해 9월 23일 항저우아시안게임 개최 이전에 북한에 보낸다는 방침"이라며 "강제 복송되면 최소 5년의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데 북한의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반대 기자회견 및 세미나'에서 중국 내 탈북민은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과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재중국 탈북민의 구급과 강제 복송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 DB에 축적된 탈북민 강제 송환 사건은 총 8148건으로, 이 중 7983건이 중국에서 체포돼 복송된 사건이다. 이는 전체 강제 송환의 98%에 해당한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불법체

류자로 간주해 강제 송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민은 항상 단속과 체포의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 현장에서 강제 노동과 임금착취 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강제 송환 피해자의 약 75%가 여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 현지 남성과의 혼인을 매개로 은신처를 확보하는 게 점차 여성 탈북민에게 일반화되면서 여성이 탈북하는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법적인 신분으로 인해 상당수는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 혼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다윗의물뿔들선교회와 에스더기도운동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도 최근 북중 국경이 재개됨에 따라 재중 탈북민에 대한 강제 복송은 시간 문제라며 당분간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PNEWS]



박우성 선교사 (키르기스스탄)

“정년을 앞두고 방문한 선교지에서 헌신을 결정했어요”

61세, 정년을 앞두고 딸 선교사가 있는 키르기스스탄에 방문했을 때,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딸의 사역을 돕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땅의 여러 동역자들

을 섬기는 선교사로 그를 인도하셨다. “나이 들어 현직을 은퇴하는 장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저 도와주고 뒷바라지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NGO, 교회, 의학

포م 지원, 한글 사역, 기도 사역 등 주님이 부르신 곳이면 어디든 지칠 줄 모르고 섬기는 노장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70)

어떤 어두움도 가릴 수 없는 것, 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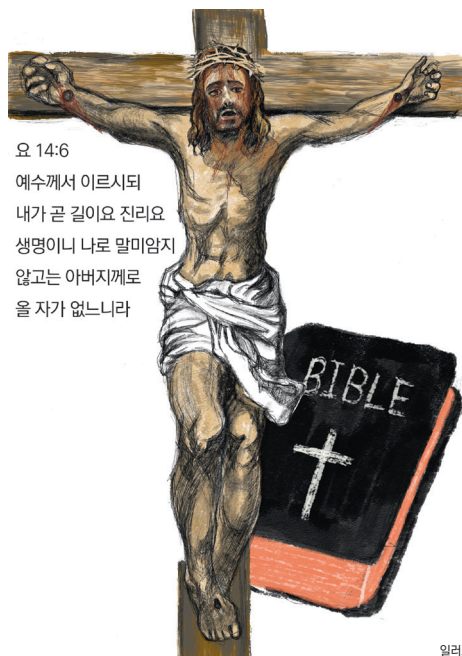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아 해냈습니다. 진리가 곧 사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진리를 찾기 위해 책상머리에서 깊이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벽을 바라보며 명상했으며, 어떤 사람은 깊은 산속에서 험한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리를 찾는다고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았지만, 아무도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수밖에 없는 자신의 노력으

로 과연 완전한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혹시 불완전한데 더 쌓아 올리는 것은 아닐까요? 유한한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수고했다고 해서 참으로 무한하고 영원한 진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이 잠시 고뇌한다고 해서 선(善) 중의 선(善)인 거룩한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진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라면,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진리는 결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

려 가장 잘 보이는 밝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가장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어두움도 그것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에 의해 가로막힌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보다 더 강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진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 자신입니다. 곧 사람 자신이 스스로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에 대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일러스트=김경선

해 자신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 자신이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으므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 돌이켜

마음을 열어 보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만날 것입니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은?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튀니지, 한때 기독교 인구 70%... 지금은 1% 안돼



▲ 튀니지 마트마타의 한 베르베르인의 가정집. 제공: WMM

튀니지 남부 사막의

땅 밑에 건설된 마을이다. 베르베르족은 거대한 우물처럼 7~8m 깊이로 큰 구덩이를 파고 그 벽면을 파고 방들을 만들어 산다.

튀니지에서는 베르베르인이 거주하며 일찍부터 기독교가 번성해 AD 5세기에는 인구의 70%까지 차지했다. 그러나 7세기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의 침공으

로 기독교가 쇠퇴해 현재는 인구의 99%가 무슬림이다.

2010년 '아랍의 봄' 시위 운동 이후, 튀니지 정부는 북아프리카 최초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지만,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어지고 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2023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에서 튀니지는 36위에 올랐다. 이슬람에서 개종해 기독교인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신고하는 등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지난 몇 년간 새신자들과 신생 교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며,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기도하자.

“만군의 하나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시 80:7) [GPNEWS]

라오스 기독교인들, 당국의 박해로 신앙 위협 받아

라오스의 기독교인들이 라오스 당국의 박해에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어 기도가 절실한 상황이다.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라오스 남부에 있는 한 마을에서 기독교인 여성 바운타비(가명)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가 현지 당국에 의해 사무실로 소환, 신앙을 부인할 것을 요구당했다. 바운타비는 3년 전에 그녀가 사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수개월 뒤에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도 신자가 됐다. 이들이 개종한 뒤, 마을 주민들은 신앙을 버리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당국으로부터 소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촌장은 이들의 신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신앙을 포기하라고 했다. 이에 당국과 마을 주민들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지 않으면 패밀리 북(family book, 가족관계증명)이 마을 등기부에서 제거되고 마을에서 어떠한 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될 거라고 위협하고 있다.

또한 남부의 한 마을에서 자신의 집을 개방해 신자들과 예배드리던 60대 매생(가명)의 집이 현지 당국에 의해 철거당했다. 손녀와 함께



▲ 라오스의 거리. © 복음기도신문

살아가고 있는 매생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3년 넘게 매주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해 10여 명의 신자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렸으나 지난 2월, 현지 경찰들은 그녀의 집을 급습해 철거했다. 현지 경찰은 매생의 집을 파괴한 이후, 손녀와 함께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던 매생은 경찰들에게 집을 다시 세워주도록 부탁했다. 이에 경찰은 매생에게 신앙을 부인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했으나 그녀는 이를 거절했다. 매생은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신앙을 버릴 것을 약속했고, 현지 경찰들은 그녀의 집을 수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기독교로 개종해 2021년부터 가정

교회를 시작한 사야시트(가명)는 그의 개종을 반대하는 마을 사람로부터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위협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사야시트와 아내, 아들, 그리고 다른 두 가정들(총 9명)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버텼지만, 올해 2월에 집에서 쫓겨났고 눈에서 살게 됐다. 실제로 지도자가 쫓겨나자 몇 명의 신자들은 겁을 먹고 신앙을 포기했다. 현재 사야시트와 신자들은 전기도, 제대로 된 물도 없이 눈에서 계속 살고 있다. 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장 막사를 개방해 다른 신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 하와이, 산불로 건축물 등 약 2000개 파괴... 재건비 55억 달러 추산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서부 라하이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지난 17일 기준 사망자 106명, 실종자 1300여 명, 대피 인원은 4500명으로 집계됐으며, 2200채 이상의 건물들이 손상되거나 파괴됐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태평양재해센터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손상·파괴된 건물 중 86%는 주거용 건물로, 재건에 필요한 비용은 55억 2000만 달러(약 7조 3500억 원)로 추산됐다.

하나님,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하와이 마우이섬에 위로와 구원을 베풀어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자연재해 이후의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여주시길 간구합니다.

유럽·영국행 이주민 보트 전복 사고 잇따라

유럽과 영국으로 향하는 이주민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북아프리카 튀니지 가베스 앞바다에서 유럽행 이주민 보트가 침몰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으며, 13명이 구조됐다. 또한 이날 새벽 2시에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영불해협을 건너던 이주민 보트가 가라앉아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약 50명이 구조됐다.

주님, 고국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찾아 불법 이주를 하다가 이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을 찾아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에게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은혜를 허락해주시시오.

韓 문지마 폭행, 전국서 매일 3건씩

올해 상반기(1~6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리는 문지마 폭행 사건이 전국에서 매일 3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중 범행동기가 '사회를 향한 적대감'이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이었다.

하나님,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으로 옷을 삼는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소서.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8월 28일 ~ 2023년 9월 16일

8월 28일 ~ 9월 2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8.28-30(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야산병원(이**)010-5248-4147, 8.28-9.1(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9.1(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9.1(00시)-2(24시) ▶대전 서구 / 광야아들람공동체(정**)010-3697-0641, 9.1(12시)-2(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박**)010-2664-6936, 그 외 9교회 진행중.

9월 4일 ~ 9월 9일 ▶경기 수원 / 하늘꿈연동교회(문**)010-6687-9266, 9.4(0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9.4-6(13-17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9.4-9(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9.5(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9.6(10-14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9.9(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그 외 9교회 진행중.

9월 11일 ~ 9월 16일 9.11-16(05-22시) ▶전남 담양 / 물뎀동산교회(조**)010-6429-7027, 9.12,14-16(20-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9.13,15(10-12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9.14(0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9.14(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9.15(14-17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9.16(09-21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8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낙태

성혁명 주장하는 미국 언론... WP, 낙태 금지 때문에 10대가 부모됐다고 보도

최근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낙태 금지법 때문에 쌍둥이 자녀를 낳게 된 한 십대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낙태 금지가 그들을 십대 부모로 만들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가족연구위원회의 미디어 코디네이터인 조슈아 아놀드가 이는 낙태를 옹호하려는 WP의 모순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소개된 그의 기고문을 번역 소개한다. <편집자>

미국의 WP는 최근 “낙태 금지가 그들을 십대 부모로 만들었다.”는 이상한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5000단어가 넘는 이 기사는 낙태 찬성을 옹호하려고 시도했지만 낙태의 비인간성 측면 외에는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 기사는 한 살짜리 쌍둥이 딸을 둔 19세 부부인 빌리(Billy)와 브룩하이(Brooke High)의 이야기를 다룬다. 빌리와 브룩은 결혼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2021년 봄, 브룩이 임신을 하게 됐다. 그들은 아기를 낙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빌리와 브룩은 임신초기라 할 지라도 태아를 낙태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막 통과된 텍사스에 살고 있었고, 낙태를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차로 13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 때문에 WP의 헤드라인은 이들을 십대 부모로 만든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법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흔들렸고, 빌리와 브룩은 결혼 상담에 참석한다. WP는 이들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며, 각자의 결점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빌

리는 비디오 게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휴대폰 중독에 빠져 있으며, 다른 여성을 쳐다본다. 브룩은 남편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자주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를 한다. 부부는 이혼에 대해 생각해 봤지만 자기 자녀들이 자기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다.

이에 WP는 “아기가 없었다면 브룩과 빌리는 함께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자녀와 함께 그들은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위해 예비하신 행위, 즉 ‘한 몸’으로서 결혼의 관계적 친밀감을 누리는 행위들을 탐닉했음에도, 두 자녀를 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쌍둥이가 태어나면서 이들 부부의 인생 계획이 틀어졌다. 브룩은 부동산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지만 전업주부가 됐다. 빌리는 부리토 레스토랑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더 나은 월급을 받는 월마트에 취직하는 것 이상의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의 꿈은 매일 스케이트를 타는 것(실제 브룩을 스케이트 공원에서 만났다)과 밤에는 파티를 여는 것이었다. 그러나 빌리는 아내와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연봉 6만 달러의 공군 정비공으로 취직했다. 이에 WP는 “빌리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내와 쌍둥이를 부양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아내와 쌍둥이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빌리가 옳은 일을 한 것이다. WP에 따르면, 빌리의 부모님, 그가 존경하는 선

생님 등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다. 이에 빌리는 지난 여름 법원에서 브룩과 결혼하고 향후 6년 동안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공군 정비공 계약서에 사인했다. 그는 쾌락을 추구하는 독신 생활을 희생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졌다. 즉, 그는 조금 성장했다.

낙태 자유보다 금욕 교육이 강조돼야

이 기사에서 언급된 유일한 부정적인 경험은 빌리와 브룩이 경험한 고립감뿐이었다. 많은 커플이 출산을 서른 살 가까이까지 미루는 시대에 쌍둥이를 둔 19세 부부가 겪는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집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군 생활을 하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 부부의 고립감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는 강력한 교회 공동체와 그에 수반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렇다면 왜 WP는 이들의 이야기가 낙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고 믿었을까? 물론 빌리와 브룩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쌍둥이를 둔 19세 부부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수백만 명의 다른 부부들이 직면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이야기에서 한 번의 낙태만큼 충격적이고 끔찍한 이야기는 없다.

WP는 심지어 브룩이 “내가 낙태를 했었더라면...”이라고 가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녀는 낙태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며 “아이들은 우리 자녀”라고 말한다.

빌리와 브룩의 이야기에서 이전 세대의 메아리를 들을 수도 있다.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된 부부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 해결해야 했던 갈등, 희생이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그러한 희생을 하길 잘했다고 말할 것이다.

빌리와 브룩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고, 그것은 나쁜 일이라는 구도가 WP의 기사 전반에 깔려 있다. 하지만 이는 디즈니 영화처럼 현실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꿈돌이 푸나 하쿠나 마타타’와 같은 영화가 아니다. 성서학자 칼 트루먼은 그의 저서 ‘현대 자아의 부상과 승리’에서 이러한 자기 중심적 세계관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오염시켰는지 보여준다. 인생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자기 정의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정의한 것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3-45)

그리스도인, 특히 남편(엡 5:25-28)은 섬기는 태도(빌 2:5-8)로 부



출처: Erika Giraud on Unsplash

름받았다.

WP의 설명에서 간과된 것은 쌍둥이의 삶이다. 사실, 이 아름답고 재미있고 지적인 두 어린 소녀가 부모의 기쁨이다.

낙태 합법화 옹호에 대한 WP의 논리적 결론은 두 젊은이의 직업적 야망과 근심 걱정 없는 즐거움이 이 두 소중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꿈을 쫓는다는 것’이 자궁에서 자신의 자녀를 억지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변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미성숙과 성적 난잡함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다. 금욕 교육의 메시지는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성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숙하고 미혼일 때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면 미성숙하고 미혼일 때 성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50년 동안 많은 정치인과 교육자들은 낙태를 ‘안전망’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의 우선순위를 낮췄다. 이제 각 주에서 이 끔찍한 관행을 폐지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므로 금욕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GN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2023 선교한국, 1400여 명 참여... 매년 개최도 검토

지난 7일 포항 한동대에서 5년 만에 열린 청년 선교대회 '2023 선교한국대회'가 11일 막을 내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 14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하나님



© 복음기도신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복음의 사건에 대해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의 기쁨을 다양한 주제와 증인들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경강해를 통해 성경의 선교적 관점을 제시하고, 저녁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각성과 헌신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다양한 강사진들이 참석했다.

월요일 저녁 윤태호 목사(JDM 대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선교적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것을 말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화요일 저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중앙아시아에서 선교를 감당해온 박현주 선교사(WEC 부대표), 튀르키예(옛 터키)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한 김요한 선교사(전 GMP대표, 현 돌로스네트워 대표)가 주님의 은혜를 나눴다.

10여 년 전 수천 명이 참석한 과거의 대회에 비해서는 현격히 줄어든 규모이지만, 참석한 청년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자신의 삶과 선교의 부르심을 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마련

된 선교단체들이 참여한 박람회와 다양한 주제 강의, 선교지 도구와 전신자료, 문화 체험을 통해 선교지를 경험할 수 있는 다이나믹 배움터가 마련됐다.

특히 40여 단체가 참여한 선교박람회는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순종하고 있는 사역과 선교적 삶, 각종 자료와 도서들을 소개하며 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마음에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데 마음을 모았다.

또한 구체적인 선교적 삶을 위해 전방개척 선교, 이주민 선교, 총체적 선교라는 3가지 영역 아래 52개의 주제 강의를 통해 청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선교의 삶을 도전했다.

WEC국제선교회의 김재형 대표는 장기선교사 로드맵을 소개하고, CCC의 김수용 선교사는 선교의 첫 걸음인 단기선교에 대해, 디아스포라를 통한 다민족선교에 대해 안성호 교수(미국 고든대학), 국내 난민 선교에 대해 김종일 선교사(열무김치 대표)가 발표했다.

한편, 최읍 선교한국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는 그동안 대학생 선교단체가 주관해온 선교한국대회가 아닌 다양한 선교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격년으로 진행되는 대회를 매년 주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GNNEWS]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복음과 기도로 순종하는 박우성 선교사 (키르기스스탄)

• 1면에 이어

- 선교지로 오시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딸이 선교사가 된 지 5년이 지나 한번 선교지를 둘러보러 갔습니다. 싱글 선교사가 어린이 교육과 장애우 가족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30여 년을 섬겨온 공직의 정년을 앞두고 있어서 퇴직하면 합류할 생각이었는데 딸도 함께 살기를 원하며 강권했어요. 막상 선교지에 와서 보니 도와줄 일이 전혀 없고 딸이 선배 선교사가 되어 든든한 가이드를 해주었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모자란 저에게도 할 일이 많이 생기더군요.”

선교사로 헌신한 딸을 만나러 갔다가...

- 어떤 일을 하셨나요?

“초기에는 딸이 섬기던 비정부기구(NGO), 어린이센터를 도우며 이 지역에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 지회를 창립하고 조이(JOY)복지센터를 세웠습니다. 교민과 유학생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조이(JOY) 교회를 설립했어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할 일이 제법 많더군요.”

올해 75세인 박 선교사는 한국에서 27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터를 달라고 기도해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는 닷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말과 주일에는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 또한 한국 CBMC, 장기기증운동, 남전도회연합회와 장로연합회도 섬겼다. 이러한 그의 섬김의 삶이 선교지로 이어진 듯 보였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16년 지났어요. 두 차례 수술을 받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은 돕고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기도하면 할 일을 주시고 또 주님이 ‘너 이런 것 좀 같이 도

와라. 협력해라.’ 하면서 인도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저기 감초처럼 끼워주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70인생을 살다 보니 고집할 것도 없고, 양보하고, 내가 손해 보고 부족한 편을 택했어요.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는 말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으니깐 관계도 좋아지더군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닦아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이 협력하게 되고 또 같이 일을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여기저기 섬기게 된 것이 한민족 고구마 나눔 운동이나, 한글 세계화 운동, 나라사랑 동지회, 복음과 기도 섬김이 등 여러 곳에서 섬기게 됐어요.”

- 섬기는 영역이 많으시네요?

“제가 어떻게 한글 세계화 운동을 하겠어요? 한글 전공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냥 각 나라의 본부장을 추천해 주는 일을 해요. 각 나라에 한글 선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나라 한글세계화운동 본부장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역할만 해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더군요.”

심부름을 하다 보니 그게 선교가 됐어요

- 각 영역에 사람을 세워주는 뒷바라지인 셈이군요.

“하나님의 은혜죠. 선교사들에게 의약품을 지원하는 일이나 CGN TV에서 안테나를 설치해주는 일

“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으니깐 관계도 좋아지더군요”
”



▲ 박우성 선교사(우측에서 두번째)가 선교 현장을 방문한 아웃리치팀들과 함께 말씀기도에 참여하고 있다. 제공: WMM

간이었어요. 훈련을 받기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나의 죄 된 옛 생명이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나니 아무래도 이웃들을 향해서 살게 되는 생활로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합동측 장로로 평신도 선교사 파송받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복음과 기도로 살아가는 요셉의창고 파송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이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숙소만 다를 뿐, 아버지의

던 사역을 멈추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복음과 기도를 만나게 되면서 기도센터로 바꾸게 됐죠. 또 근처에 ‘복음과 기도의 집’ 센터도 있어요. 이곳엔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의 집이 선교사들이 사역 후에 지쳐있을 때 쉴 수 있는 집. 또 현지 사역자들이 와서 은혜받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 제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과 기도로 선교지를 섬기다

-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6.25 동란 때 형님과 누나,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피난을 가셨어요. 피난길에 교회 담 밑에서 하루저녁을 보냈다고 해요. 당시는 교회인지도 모르고 큰 집인 줄 알았다더군요. 새벽이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따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통성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어머니가 그걸 구경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뒤집어진 거예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알게 됐어요. 일자무식이었던 어머니가 교회에서 한글을 깨우치고 교회 리더가 됐어요. 나중에는 어머니가 남편과 남편 회사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집 앞마당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20세가 못 되어서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에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후 지금까지 주님이 은혜로 인도해주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도제목 말씀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드러진 아버지 집에서 여생을 복음의 통로로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 주신 복음과 기도의 집이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리모델링이 잘 되어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으로 사용되도록 기도해주세요.” [GPNEWS] Y.K.



▲ 복음과기도의집 센터. 제공: 박우성 / 복음캠프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박 선교사(좌측). 제공: WMM

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분을 세워주는 거죠. 도와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섬겨주는 일을 해요. 고구마 나눔 운동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는 관리소장을 세워서 다 맡아서 하도록 해줘요. 저는 책임

도 의도치 않게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들을 다른 분들에게 넘겨드리고 복음과 기도로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과 기도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거든요.”

- 복음과 기도로 섬기신다는 건 어떤 건가요?

“이곳에 요셉의창고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어느 날 열방을 위한 기도인 느헤미야52기도를 한다고 한인선교사회를 통해서 동참해달라는 광고가 올라왔어요. 저도 한두 시간 참여하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 계속 기도에 참여하게 됐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곳에서 복음학교라는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안내받고 한국에서 열리는 복음학교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너무 좋더군요. 죄덩어리였던 내가 복덩어리로 완전히 변하는 행복한 시

집 센터에서 함께 기도하고 모여 예배드리고 연합하며 살아요.”

- 이전과는 또 다른 사역이 펼쳐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역들을 하시나요?

“단순하게 말하면, 복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는 것이 선교더군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순회선교단에서 주관하는 복음캠프가 이곳에서 열릴 때, 저와 요셉의창고에서 파송된 복음기동맹 선교사님들이 함께 복음캠프를 섬겨요. 70~80명이 모여서 한 주 동안 먹고 자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죠. 캠프를 위해 식사도 준비하고, 스텝으로 섬기죠. 그리고 평소에는 동맹군들과 ‘아버지의 집’ 센터에서 예배드리고 느헤미야 기도도 해요. 아버지의 집은 딸 선교사가 어린이 사역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한국 본부로 옮기게 되면서 그동안 해왔



▲ 느헤미야52기도에 참여하고 복음기동맹군들과 함께. 제공: 박우성





선교 통신

“이 청소년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6월 첫째 주까지 6주간 진행된 텐트 학교는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잘 갖추어지거나 질서 있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보다는 손이 먼저 움직이는 아이들, 생각보다는 본능과 욕구에 따라 행동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꾸밈없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산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등 눈에 보이는 부족함을 말이지요. 하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이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단순하게, 그

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섬기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보낸 아이들과의 시간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무엇을 주지 않아도, 저에게 다가와 저의 손을 잡고 함께 놀이를 하는 것으로도 즐거워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간식과 선물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자주 허락하지 않았습니니다. 그것들보다 저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그리고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들이 더 저희들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2017년 처음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멀리 P지역으로 떠나 정착했지만 두 가정 정도가 아직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오후가 되면 종종 저희 집

을 방문합니다. 특별히 하는 일은 없지만, 줄넘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공놀이기도 하며 놀다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놀이에 저를 꼭 끼워주고 싶어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싶은데 아이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아이들이 가고 나면 더 잘 놀아주지 못한 아쉬움이 늘 남습니다.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 잊지 않고 방문해 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반가운 손님들이 있습니다. 멀리 P지역으로 떠났던 아이들이 이런 저런 일로 이곳을 오면, 저희를 기억하고 찾아옵니다. 부모님을 따라 오기도 하고, 아파서 오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오기도 하고, 궁금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청소년이 되었지만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자리 구하기

도 쉽지 않아 그냥 하는 일 없이 하루를 때우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배울 기회도 일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방문하면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보냅니다. 저희가 그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점점 자라가는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과 그들이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너무 답답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기에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뜻을 잘 발견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그리고 자라나는 이 땅의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GPNEWS]



출처: Yannis H on Unsplash

M국=바나바·실라

GPN 칼럼

매직 고시원에 세워진 매직 교회 이야기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 게재된 다양한 칼럼을 지면에 소개합니다. <편집자>

여기 고시원 교회를 세웠던 나의 이야기가 하나 있다. 청년기 기도하던 중에 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다. 조금도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기도의 자리에서 소원이 생기자마자 이불 보파리를 매고 서울로 올라갔다. 모교회 목사님이 공부하신 신학교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일단 학교가 있는 사당동으로 갔다. 어머니께 공중전화로 소식을 전했다. 밤 9시였다. 배가 무지 고팠다. 주머니에는 3만 원이 있었다. 동네를 돌다보니 언뜻 ‘숙식 제공’ 알바 광고가 눈에 띄었다. 고시원 앞이었다. ‘매직 고시원!’ 다른 선택이 없었다. 나는 매직 고시원에서 24시간 총무 알바를 시작했다. 사무실을 밤새 지키고, 120개의 방을 돌면서 시기에 맞춰 월세를 수금하는 일이었다.

방마다 돌며 수금을 하는데 마음이 참담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했다.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가출 청소년, 직업 여성들, 사업 실패로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있는 가정들. 그들을 만나면서 가슴에 불이 붙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 보였다. 나는 장부를 하나 더 만들었다. 원래의 장부는 수금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 장부의 표지에 ‘매직 교회’라고 적었다. 그 안에 방 번호와 이름을 넣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을 빈칸을 만들었다. 매일 7개의 방을 방문하며 나름 심방을 시작했다.

전도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다. 그런데 66호 방 아저씨를 만나기 힘들었다. 그 방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것이 났다. 노크를 해도 늘 대답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방문을 열고 대화에 응해주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만 틀어박혀 지내던 그는 마약중독자이자 도망자였다. 사업에 실패하고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 사기 누명까지 쓴 모양이었다. 유명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로,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약국 사업도 승승장구했다. 10개가 넘는 약국이 모두 잘 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마약성 약품을 빼돌리면서 동업자가 그를 신고했다. 배신감을 느낀 그는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업자가 서류를 꾸며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사라졌다. 천문학적 인 빚을 진 그는 가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류상 이혼을 하고, 1년 정도 숨어 사는 과정에서 다시 마약을 시작했고, 감옥에도 여러 번 다녀왔다. 그러면서 가족은 빨빨이 흩어졌고, 그는 아직도 매일 술과 약을 달고 살았다.

점심에 시작한 이야기가 저녁까지 이어졌다. 말을 다 마치고 그가 내게 고기를 사주고 싶다고 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들어준 적이 없다면서.

식당에서 그가 물었다. “그런데 뭐 하는 사람이기에 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들어주는 거야?” 나는 떠오르는 대로 바로 대답했다. “사랑해서요.” 뜬금없는 짧은 말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오가면서 내가 기도하던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했다. 처음에는 내가 아픈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볼 때마다 웅크리고 중얼거리고 있어서 한번은 뭐라고 하는지 엿들어 보았다고 한다. 그랬더니 고시원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더라는 것이다. 그 이후로 새로운 고시원 총무가 방마다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전도를 했다는 소문도 들었다고 한다.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소문도.

그는 평생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자기 차례가 되기를 오래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그럼 저는 뭘 하면 되죠?” 나는 한 것이 없었다. 단지 그를 위해 몇 주 동안 기도했을 뿐이다. 그리고 만나서도 한 일이 없었다. 다만 만나절을 그의 어두운 인생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였



출처: Josh Applegate on Unsplash

다. 그는 하나님이 이미 전도를 해두신 영혼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형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는 갈매기살을 굽던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다. 영접 기도도 했다. 그리고 내가 읽던 성경책을 당장 주었다. 우리는 식사 후에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매직 고시원 옥상에서는 철야예배가 진행되었다. 나는 그에게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가르쳐주었다. 우리는 400번쯤 반복해서 불렀다. 부르는 동안 지난 몇 주간 영접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올라왔다.

[GPNEWS]

송준기 목사(웨이처치 담임)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복음의 능력

깊이 잠든 교회여! 깨어나라!

마귀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독액(毒液)을 비축해둔다. 그의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인인 교회이다. 이러한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악한 세력에 맞서 몸부림치며 간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건물 확장에 열을 올린다. 부속 건물을 지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한다. 하지만 기도실을 넓히는 교회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설교단에서 기도의 부흥은 회중의 기도 부흥을 낳는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안락한 생활을 누린다. 우리는 중국 또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처참한 고통을 잊었는가? 깊이 잠든 교회, 이웃의 고통을 망각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교회, 세상의 단맛에 취한 교회를 깨우기 위해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가?

[GPNEWS]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 (레오나드 레이븐힐)’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절대! 전부의 복음! (5)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가룟 유다

사사 삼손을 가장 비참한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여자는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이었다. 그 여자가 아무리 순수한 사랑을 했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이 협박과 공갈과 돈으로 삼손을 사지에 몰아넣게 한 것을 보면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참한 짐승처럼 눈알이 뽑혀버리는 비극으로 몰아넣는 짓이 되었으니 사랑 타령하는 자아 만족의 끝인 것이다. 삼손을 넘어뜨리는 데는 다른 것이 없었다. 그를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성(性)'이었다. 탐욕 안에 있는 성적 욕구였다.

가룟 유다, 선생을 팔아먹는데 썼던 그의 동기는 다른 것이 없었다. 제사장들의 기쁨때 묻은 그 돈 삼십 냇이었다. 역사에 단 한 번 허락

됐던 놀라우신 예수님을 은 삼십에 팔아먹었다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다. 인류에 가장 송고하고 가장 고귀한 기회를 은 삼십에 팔아버리다니! 아무리 마음이 없었다고 변명해도 영원히 지옥에서 그 노래를 계속 불러야 할 만큼 입이 천만 개라도 변명할 수 없는 행동이다.

예수님을 잠깐 한 번 만나고 주님의 눈빛과 그 사랑의 섬김과 진리에 인생이 뒤집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아무리 심령에 조금 장애가 있다 해도 3년 반 동안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 거룩하고 그 완전한 사랑,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팔 수가 있었을까? 요한복음 13장 1절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한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을 팔아먹는 걸 다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시작한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장면은 눈물겨울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먹먹해질 장면이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걸 아시고 그 발을 씻기신다. 한 시간 뒤면 당신을 팔아먹으러 갈 배신의 발일 줄 알면서 발을 씻기신다.

주인이 가장 소중한 VIP에게 빵에 초를 찍어주는 바로 그 예배로 우연히 그릇에 손

을 넣는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초를 찍어 건네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오늘밤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돌이키라는 마지막 주님의 간청이셨다. 그런데 유다는 그 딱 조각을 받고 나갔다. 어둠 가운데로 빨리 들어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어찌면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지는지. 영원한 어둠 가운데로 역사에 존재하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 삼십에 팔아먹으러 나가는 비참한 인간, 가룟 유다였다.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2018년 8월) <계속> [GPN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일러스트=이예원

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app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복음기도신문'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GPM 복음기도신문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

GPM 도서

에그 멘토(김영하) 지음

값 8,000원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을 위해 헤브론원형학교는 교육의 주체를 교사, 책임교사로 명명된 부모, 신앙의 터전인 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땅의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든 용감하게 자신을 드러 순종하는 순종의 전문가, 용감한 정예병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의 역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사, 로그미션 대표)

"책임교사로, 교육선교사로 각각 헌신하여,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마을마다 동네마다, 종족마다, 나라마다 증거하고, 거짓과 탐욕, 어둠과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길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로 쓴(주홍글씨), <책임교사를 위한 교육백서>의 일독을 강추합니다."

장갑덕 목사(대전 카이스트교회)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기도총서2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eBook도 있습니다

김용의 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아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의 소리 1670-3160

워크숍
지상중계

나의 회개로 팀은 하나가 되었다

선교훈련을 위해 복음선교관학교에 참여했다. 한 강사님을 통해 '죄가 처리된 그리스도인, 복음이 실체가 된 자는 자기 옳음이 없는 자다.'라는 내용이 마음에 남았다.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 복음이 실체가 되지 못하는 내가 복음이 필요하며, 내가 선교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 생각은 훈련의 마지막 과정인 아웃리치를 통해 실제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아웃리치를 가게 될 나라가 발표되기 전, 난 유럽이나 북미 등 깨끗한 선진국으로 갔으면 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나라는 에티오피아였다. 하나님은 나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에 화도 나고, 좌절이 되어 눈물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웃리치를 통해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악취 나고 더러운 무정한 자인지 철저히 보여주셨다.

아웃리치 기간 중 어느 날, 진흙이 묻은 팀원들의 신발을 닦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모든 팀원이 아니라 몇 사람의 운동화만 닦아주고 싶었다. 팀장님에게 그 생각을 나눴다. 그러



일러스트=고은선

자 팀장님은 "팀원들 신발 모두를 닦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본인 것만 닦으세요."라고 말했다. 내가 팀장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어 팀장님은 내게 "김종순 자매님, 사랑이 정말 없으시네요."라고 덧붙였다.

그런 상태에서 어려운 마음으로 24시간 진행되는 느헤미야 기도가 시작되었다. 2시간 정도 쉬는 시간에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웠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다. 팀장님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렇게 내면 여행을 하는 동안 주님이 정답을 주셨다. "종순아, 너는 그렇게 사랑 없잖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잖아. 그게 너

의 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맞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 것만 닦아주고 싶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던 나는 처음부터 모든 팀원들의 신발을 닦아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내 '선한 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이 없는 나를 보게 하셨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났다. 주님 앞에 항복하며 팀장님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팀장님은 자기도 감정적으로 했노라 용서를 구하시며 꼭 안아주셨다.

그제서야 깨달음이 왔다. 주님이 나를 에티오피아로 불러주신 것은 먼저 나를 감싸고 있는 견고한 성에

서 벗어나게 하려는데 있었음을 알게 해주셨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려는 나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다. 팀 모임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나의 회개로 팀은 하나가 되었고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게 되었다.

문제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다. 현장범임에도 불구하고 남 탓하며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하나님과 대결하던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이 없어. 믿음도, 긍휼도, 용서도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 전부가 내게 있어. 너로서는 안돼. 내가 임마누엘 할 거야." 주님은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넘어져 있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다.

나는 죄 밖에 나오지 않는 존재적 죄인임을 알았기에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며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한다.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한다.

[GPNEWS]

김종순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독교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가슴 조이고 심장 두근거릴 때... 공황장애일 수도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18)

정신병이 아닌 신경증적 정신 질환의 대표적으로 흔한 질환에는 공황장애가 있다. 공황장애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엄습하는 강한 불안(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질환이다. 공황 발작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기불안 때문에 그런 상황을 회피하게 되거나 두려워하게 된다. 공황 발작의 증상으로는 심한 불안과 함께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대부분 처음 증상을 경험할 때는 심장이나 신경의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응급실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몸이 떨리기도 하고 손발이나 얼굴이 저리기도 하고 땀이 많이 나고 어지럽고 기절할 것 같고 메스껍고 배가 아프고 죽을 것 같은 느낌,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런 증상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 공황장애로 진단하게 된다.

공황장애의 사례를 살펴보자. A는 내향적인 성격으로 공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30대 남성이다. 그는 최근에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원치 않았던 외근직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어느 날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몇 분 정도 처음 경험했다. 이런 증상이 또 생길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고 불안해져서 쉽게 잠에 들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후 A는 운전하던 중에 땀이 나고 숨 막히고 몸이 떨리며 이리다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 이후 2~3일에 한 번씩 같은 증상을 경험하자 불안감이 지속되었고 결국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정신과를 내원했다. <계속> [GPNEWS]

<복음의 소리 316전화 상담 종료 안내>

신앙상담을 위한 복음의 소리 316전화 상담을 8월부터 종료하게 됐습니다. 이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 316 전화를 이용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담의 질문과 답을 정리해서 온라인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담자로 섬겨주신 동역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 반동사상법 위반 정치범수용소행 가장 많아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북한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구금된 인원이 지난해와 비슷한 20만 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난 1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또 지난 1년간 관리소에 신규 입소한 인원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관리소 수감 인원은

19만 8900여 명으로 1년 전(20만 5800여 명)에 비해 약 3.4% 줄었다. 또한 소식통은 관리소 신규 입소자는 "봉쇄규율 위반자, 불평불만자, 당·국가·군사 자료전송자, 밀수 왕초가 많다."며 "그중에서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북한 관리소별 수감자 수는 ▲14호(개천) 4만 200여 명 ▲15호(요덕) 3만 8500여 명 ▲16호(화성) 1만 5900여 명 ▲17호(개천) 4만 4000여 명 ▲18호(북창) 2만 1800여 명 ▲25호(수성) 3만 8500여 명 등이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곳은 수감 인원이 약 44.6% 급감

한 16호 관리소다. 이에 소식통은 "지난 3월에 급성 아메바성 적리(이질)가 관리소를 휩쓸었다."면서 "줄어

든 인원의 90%는 병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식통은 "15호 관리소는 1년간 입소자를 집중적으로 받은 적

북한이 '사회주의 무상치료'를 복지제도로 선전하고 있지만 현실은 환자들이 수술비와 부대비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검사장비를 가동하는 발전기 기름값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지난 14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회령의 30대 여성 이모 씨는 지속된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난소에 큰 종양이 발견되었는

데 중국 돈 2000위안 정도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결국 이 씨는 보위부의 감시를 무릅쓰고 탈북한 가족에게 연락해 수술비를 마련해 겨우 수술을 받았다. 이에 매체 소식통은 "북한은 무상치료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수술받으려면 평양에 있는 병

원으로 가야 하는데 수술비

이 없는 데다 병사(질병), 사 고사, 쇠퇴(자연사) 사망자

원 변동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계속> [GPNEWS]

망자와 입소자가 비례해 인



北, "말로만 공산사회... 환자들, 무상치료 없어"

직접 구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장마당에서 구매한 것이니 부작용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면책 조건을 내건 뒤 수술을 진행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수술을 생각도 못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돈 없으면 고통받다가 죽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했다. [GPNEWS]



그리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2악장

모든 그리움과 공허는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대 청소년이 재학중인 기독교 주방을 섬기며 잠시 앉아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엄마를 따라 온 작은 아이, 셋별이에게 주방을 섬기시는 권사님이 요구르트 하나를 건내시며 질문을 던지셨다. “셋별야, 이안이 어디 갔나? 이안이 어디 간 거야?”

이름처럼 반짝이는 두 눈을 깜박거리며 미소만 짓고 있던 셋별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흐르는 땀을 닦으며 셋별이를 대신해 권사님께 대답을 드렸다.

“이안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권사님은 얼마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사무치는 그리움에 작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손녀딸을

생각하셨을 게 분명하다.

그리움과 아픔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식사 시간에 맞춰 밀려오는 학생들에게 배식을 해 주었다. 주방 섬김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이 일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깊이 잠든 시간에 나는 홀로 주님 앞에 앉았다. 그리움이란 주제가 나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마다 많은 종류의 그리움들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궁극의 그리움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이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전 3:11)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남은 존재적 목마름과 그리움이 시가

되기도 하고 극이나 음악이 되기도 한다. 흘러가 버린 유년이나 청춘을 향한 그리움, 헤어지거나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그리움, 고향과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향수, 자유를 잃고 억압 속에서 고통하며 부르는 한 맺힌 이들의 노래가 그러하다. 이뿐이라마는...

열방의 가슴 아픈 기도 제목들과 함께 이런저런 생각들을 주님께 올려 드리고 기도를 마칠 때쯤 아주 오랜만에 안토닌 드보르작(1841-1904)의 교향곡 제9번 작품번호 95 <신세계로부터> 2악장의 아름다운 주제 선율이 떠올랐다. 잉글리시호른의 멜로디가 내 마음과 영혼을 조용히 감싸주는 듯했다. 민족주의 작곡가인 드보르작은 고향인 체코를 떠나 미국의 한 음악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때에 9번 교향곡



▲ 드보르작의 9번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하는 교향악단. 출처: 유튜브 채널 Concertgebouworkest 캡처

을 작곡하게 되었다. 한 체코 음악가의 눈에 비친 미국의 인상과 더불어 이방인으로 살며 느꼈을 모국에 대한 짙은 그리움과 향수가 잘 어우러진 드보르작의 이 음악은 자기 고향에만 연연하는 편협한 국수주의적인 향수가 아니라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향수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다.

그 밤에 나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그리움이 결국 사람을 지으시고 궁극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

통과 아픔들을 통해 존재의 목마름을 깨닫고 모든 인생들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향한 그리움과 공허는 비로소 확실한 소망과 만족이 됨을 알기에 오늘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노래한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드보르작의 9번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를 찾아서 들어보아야겠다. [GPNWS] 이혜진 선교사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PN카툰 | 많이 아프셨어요?

글.그림 | 이하민 선교사 (공고민주공화국)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7. 27 ~ 8. 15 (가나다 순)
개인
권혜령 김광희 김득기 김선례 김수미 김신애 김애심 김정희 김종순 박경희 박성규 박신희 신혜경 안민자 안수경 오성애 오세주 유영권 이영선 이영욱 이은주 이장원 이진희 장근혜 정요한 정호진 조형광 존/정희 최근희 최점옥 홍고집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고현교회 나죽고예수사는교회
대구서현교회교정팀 모리아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빛과함께하는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오예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았더라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